

끼아라 루빅: 일치의 정치를 위해

택한 글들

1. 사랑인 정치
사회를 위한 “배경”인 정치
정치적 범주로서 형제애
보편적 형제애
2. 일치의 정치를 위한 도구들과 방법들
정치와 “사랑의 예술”
지불해야 하는 값
형제애의 서약
참으로 권위를 지닌 정치
3. 세계화를 너머, 일치
“꿈이 있습니다”
상호의존성
갈림길에 선 지구
도시에서 세상으로
“거룩한 평화”
 - 세계적 청원
 - 세계적 정의
 - 영신적 봄
 - 거룩한 평화

1. 사랑인 정치

사회를 위한 “배경”인 정치 ¹

어느 날 저는 사랑인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활동에, 곧 경제, 보건, 대중매체, 예술, 학문, 정의 집행에 색깔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정치는 그 어떤 색도 띄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는 배경처럼, 다른 모든 색깔을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검은 색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는 삶의 모든 환경과 끊임없이 관계를 찾아야만 하니, 이렇게 하며 사회 자체가 그의 모든 면들과 더불어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면서 정치는 자신 안에 고유한 자리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올바른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주고, 특권자로서 낮은 위치에 서며, 늘 참여의식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대화와 중개 역할, 책임감과 구체성을 뜻합니다.

정치적 범주로서 형제애 ²

“자유, 평등, 형제애” 이 세 표어는 현대 정치 프로그램을 요약하고, 심오한 영감을 표현하며, 오늘 날 우리에게 이 원대한 열망을 얼마 만큼 실현했는지 깊이 검토할 것을 재촉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세 개의 중요한 원칙을 선포했지만, 이 혁명이 이 원칙들을 고안해 낸 것은 아닙니다. 이 원칙들은 세기에 걸쳐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복음 선포로 출발해 힘겨운 여정을 이미 시작했었습니다. 복음 선포는 참된 혁신을 일으키며 여러 민족들의 고대 전통이 간직한 장점과 유대교적 계시의 유산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열린 새로운 인본주의로, 인간에게 이 원칙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선포로 시작해, 세기에 걸쳐 이 원칙들은 인간이 이룬 과업들을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냈습니다. (...)

¹ *Da Libertà, uguaglianza... che fine ha fatto la fraternità?* Camera dei Comuni, Westminster, Londra, 22 giugno 2004

² *Ibidem*

자유와 평등은 문명의 결실들을 표현하기에 이르며, 인간의 존엄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형성하면서 백성들의 정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

자유와 평등은 법의 원칙이 되었으며 참되고 진정한 정치적 범주로서 일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절대적인 확언은,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으니, 더 강한 자들의 특권으로 변형될 수 있고, 반면에 평등은,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니, 집단으로 만드는 전체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자유와 평등이 주는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편적 형제애 ³

그러면 이 원칙들이 얻어 들인 노고가 결실을 충만이 맺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가 참된 목적지를 향해 걸어 가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편적인 형제애 안에, 그리고 이 형제애가 주요 정치 카테고리 사이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는데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원칙들이 서로 함께 할 때에만, 이 세 원칙들은 현 시대의 문제에 적절한 정치의 시작을 예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것들은 현실이 제시하는 수 많은 도전들 중 몇 가지로, 광범위한 문제들은 보편적인 형제애의 개념과 실천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보편적인 형제애는 위대한 영혼들이 지닌 생각이기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황금률은 세상의 친구가 되게 해주며 온 인류 가정을 ‘하나’로 생각하게 해준다.” 고 말했습니다.⁴ (...)

그러나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선물로서 형제애를 제시하고 가져오신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 17,21)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시며 우리 모두를 형제로 만드셨고 “다른” 부류에서 “같은” 부류를, 원수에서 친구를 가르치는 장벽을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애는 오늘 날의 이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민족들의 일상사에 형제애의 표시들이 존재하는가요?

이 기간 동안 저는 제 삶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심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리고 여러 민족들을 직접 알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비록

³ Ibidem

⁴ Cit. in *In buona compagnia*, C. Mantovano (a cura di), Roma, 2001, p. 11.

느리기는 하지만 멈추지 않고 보편적인 형제애를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기까지, 인류의 발전을 표시하는 발걸음을 구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 이 표시들은 국가 연합과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들이 -유럽을 형성하고 있음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륙적 차원 혹은 정치-지리학적 차원으로 강도 있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로, 특별히 유엔은 민족들과 국가의 삶에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직면하며,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매년 더 확산되고 있는 결실 가득한 360 도 각도를 지닌 대화의 발전을 들 수 있고,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운동들의 성장으로 이 운동들은 세계성을 띤 목적을 지향하며 국제 관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일치의 정치를 위한 도구들과 방법들

정치와 “사랑의 예술”⁵

그럼 어떻게 형제애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형제애가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형제적 사랑의 몇몇 측면에 대해 멈추어 살펴보고 (...) 정치에서 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치의 정치인에게 정치적 사명의 선택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를 통해 그는 참된 성소에, 곧 개인적 부르심에 답하게 됩니다. 그는 사회적 필요성에, 그의 도시의 문제나 백성의 고통에,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필요성에 답하게 됩니다. 믿는 이는 하느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하여 그를 부르신다고 느낍니다. 믿지 않는 이는 자신의 양심에서 올리는 인간적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그들의 활동에 사랑을 넣고, 둘 모두에게 “일치의 운동”은 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일치의 정치인은 정치의 뿌리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사랑이라면 그의 적대자인 다른 정치인도 사랑으로 그의 선택을 이룰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늘 적의 속에 살아가지만 고칠 수도 있는 방식들을 너머 그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⁵ Da *Il Movimento dell'unità e la fraternità politica*, Conferimento della cittadinanza onoraria - Torino, 2 giugno 2002

일치의 정치인은 마음 속에 그의 적대자도 좋은 계획을 실현하고 이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만일 그가 부르심에, 참된 필요성에 답한다면 그 또한 오로지 함께 건설할 수 있는 그 공동선의 온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치의 정치인은 그에게 투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들 또한 사랑합니다. 자신의 정당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정당도 사랑합니다. 자신의 조국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합니다.

계속해 일치의 정치인은 종종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심연을 파게 되는 쓰디쓴 갈등 앞에서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그가 먼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끊어진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가 없거나 끊어진 곳에서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은 때론 정치 과정 자체를 뚫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치의 정치인에게 먼저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참되고 고유한 정치 활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이겨내고 너무나 자주 쓸모 없는 대립 속에 정치인을 마비시키는 정당의 게임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정치 안에서 형제애의 또 다른 측면은 다른 이에게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 자신을 옮기고, 반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침묵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매일 본연의 정치적 선택을 갱신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둘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현실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편파주의를 이겨내도록 하고, 사람들, 삶, 현실의 여러 면들을 알도록 해주며, 이것들은 정치적 지평을 넓혀줍니다. 모두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정치인은 더 잘 이해하고 더 제안하는 능력을 지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참된 정치적 현실주의입니다.

끝으로, 형제애는 서로간의 사랑으로 온전히 표현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민주주의는 참으로 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곧 정치인들 사이의 사랑,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일치의 정치인은 혼자서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맹자이든 적대자이든 다른 이를 사랑으로 데려가고자 노력하는데, 정치는 개별적 선택만이 아니라 관계이고, 공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개인적 관계에서만 아니라 제도적 필요성으로서 서로간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수여하는 임무들의 구별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서로간의 사랑을 허용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랑의 활동이 제안이나 결정을 통해 표현된다면, 대립에 대한 사랑의 답은 반대 의견이나 통제를 통해 실행됩니다.

지불해야 하는 값⁶

형제애를 실현하는 정치적 사랑의 이 모든 면들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정치 활동은 고독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몰이해를 깨닫게 하는지요! (...)

정치인은 분열과 단절,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형제애의 이 값은 고귀한 값이지만 또한 고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인이 이런 시련에 충실히 남는 것은 그의 시민들을 위한 모델과 구심점이 되게 하며 시민들의 자량이 될 것입니다.

형제애의 서약⁷

정치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 나라를 위해 형제애의 서약을 하도록, 개인적이든, 그룹이든, 계층이든, 혹은 정당이든 간에, 이보다 모든 개별적 이해타산을 넘어 국익을 먼저 두는 서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애는 놀랄만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애는 요구성을 함께 고려하거나 이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니, 그렇지 않다면 회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역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지역 자치권의 경험들을 조화롭게 조정합니다. 국제기구들의 중요성과 장벽들을 극복하고 인류가정의 일치를 향해 중요한 단계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추이들의 중요성을 강하게 자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형제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조직에 계획들과 활동들을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애는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전히 발전 상태에서 제외된 백성들의 개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형제애는 분쟁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할 것인지 제시하고, 전쟁이 역사 책의 기록이 되도록 해줍니다. 형제애를 실천함으로써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어떤 유형의 재산의 공유를 꿈꾸며 심지어 이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 인류가 느끼는 평화의 절실한 필요성은 형제애는 단지 가치만이 아니라, 방법만이 아니라 정치발전의 총체적 모형임을 말해줍니다. 매번 더 상호의존적이

⁶ Da *Fraternità in politica*, Sede del Parlamento della Catalogna - Barcellona, 29 novembre 2002

⁷ Da *Libertà, uguaglianza... che fine ha fatto la fraternità?*, cit.

되는 세상은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일치의 도구인- 형제애를 제안하는 정치인들, 기업주들, 지식인들, 예술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형제애가 사업가의 하루 일정을 좌우하고 정치인의 슬로건이 되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의 꿈이었습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의 정치인들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활동이 영적 차원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혹은 사회적 삶을 조절해야 하는 심오한 가치들 안에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단지 가능할 것입니다.

참으로 권위를 지닌 정치⁸

이 정치가 -제 생각에는-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이며,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도시, 국가, 그리고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이들 위에 세운 계획을 알고 이에 봉사하는 능력을 지닌 정치로, 형제애는 하느님께서 온 인류가정 위에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가 바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참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것입니다. 사실, 권력은 힘을 부여하지만, 권위를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정치가 지속될 사업을 건설하는 정치인 것입니다. 오게 될 미래의 세대들은 권력을 보유했기에 정치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3. 세계화를 너머, 일치

“꿈이 있습니다.”⁹

매번 더 지구 상에서 방대하게 형제애를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 날 확인된- 꿈이 2000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 투쟁, 배고픔, 세상의 수많은 악들이 뒤로 물러나기를 꿈꿉니다.

⁸ Ibidem

⁹ Da *Ho un sogno*, Editoriale, Città Nuova 2000, n. 1

유일한 교회를 이루는 일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만큼 교회 사이에 매년 강한 사랑의 대화를 꿈꿉니다.

그들 사이에 사랑으로, 모든 종교의 거룩한 책에 적혀있는 “황금을”로 연결된 여러 종교인들 사이에 생생하고 활발한 대화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꿈꿉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권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부유해지기를 꿈꾸며 그렇게 각 민족의 참된 부유함이었던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전해주는 세계적 문화를 태어나게 하고 세계적 지혜로서 이 가치들을 제시하기를 꿈꿉니다.

성령께서 계속해 교회들 위에 흘러 넘치시고 교회들을 너머 “말씀의 씨앗”을 강력하게 하시어, 그렇게 오로지 그분 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빛, 삶, 사업이라는 지속적인 새로움이 세상에 침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 더 많은 남녀들이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 창조주에게로 다가가며, 그분께 봉사하는데 영혼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그룹, 운동, 종교와 일반 단체들 사이에서도, 민족들과 국가들 사이에서도 복음적인 관계를 꿈꿉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국처럼 다른 이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도달점으로서 세계적인 재산의 나눔을 지향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권위를 대체하면서 모두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기 이 땅에서 가능한 새 하늘 새 땅이 앞당겨지는 것을 꿈꿉니다.

상호의존성 ¹⁰

상호의존성이라는 현실은 제게는 매우 소중한 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 정치와 경제,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한 의지를 지닌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생각을 위해, 즉 인류가정의 일치를 위해 제 삶을 바치고자 결정했습니다.

9 월 11 일 다음 날인 오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무엇보다 참되고, 책임감 있으며, 결정적으로 테러와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에 더 전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2 차 세계 대전 동안, 폭격을 당한 이탈리아 트렌토시에서 파괴와 인간적인 무능함을 느꼈던 그 경험을 다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¹⁰ Dal *Messaggio ai partecipanti alla I Giornata dell'Interdipendenza*, Filadelfia, 12 settembre 2003

바로 폭격 아래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간의 사랑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파괴의 잿더미 사이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확신 속에 사람들과 그룹들, 백성들의 구별없이,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이웃을 이 사랑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강한 원의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타와 뉴욕, 나이로비와 로마, 바그다드와 런던에서 우리는 오늘 날 자유롭고, 평등하며, 일치된, 단지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의 필요성에도 민감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지 자문하게 됩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치 프로젝트에 근본적인 정수라는 것입니다.

수 많은 정체성의 존중 안에서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일치하는 정치의 목적 자체이며 테러성을 띤 폭력과 전쟁, 세상의 자원의 부당한 분배와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 이 모든 것은 오늘 날 토론의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날, 세상의 많은 곳에서 수많은 피난민들과 굶주린 이들, 학대받는 이들, 정치적 집단으로부터 배척받고 잘려진 수 많은 실업자들의 버림받은 부르짖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분리는 그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단지 힘든 경제적 어려움 만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을 증가시킵니다.

갈림길에 선 지구¹¹

3 천 년 기를 시작하며 진행 중인 세계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결코 이르지 못했던 성속도의 목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세상을 고통스럽게 이끌어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곧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류는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문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문명이 될지 시스템으로 인한 이기주의의 문명이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인종, 문화를 지닌 개인이나 그룹을 만나며 매년 더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의 DNA 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전 인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옥한 힘입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사고방식, 선택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국제 관계의 요점 중 하나인 상호성의 의미를 다시 읽는 필요성은 국제 삶에서 공동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국경을 너머 자신의 조국처럼 다른 이의 조국을 사랑하기 까지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족들 사이의 상호성은 오래되고 새로운 줄이나 이득을 극복하고 그 대신 모두와 조건이나 이해타산 없는 활동에 영감을 받은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다른 이”를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같은 인류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며, 이런 노선에서 비무장, 발전, 협력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가장 가난한 민족도 가난과 부를 함께 나누면서 국제적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상호성을 태어나게 할 것으로, 긴급 상황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체성과 잠재력은 존중과 상호성 가운데 다른 백성을 위해 이것들을 내어주면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개인들과 위정자들이 우리의 몫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유일한 지구 공동체를 이룰 것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토피아인가요? 세계화를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으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치와 다양성 안에서 인류가정을 다시 이루는 힘을 지닌 그 사랑을 지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여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이 “새 인류”의 “일꾼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세계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때가 이르렀을까요?

¹¹ Da *Il pianeta al bivio*, Editoriale, Città Nuova, 2001, n. 14, p. 7

도시에서 세상으로 ¹²

오늘 날 역사는 거대한 도전들에 우리를 맞추도록 부릅니다. 모든 민족들의 발걸음에 상처를 입히는 긴장감들은 개인과 단체로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양성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을 질문합니다. 작은 도시를 운영하던 대도시를 운영하던, 능동적인 시민으로 아니면 학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로 공동선을 건설하기 위해 참여하든지, 기구에서 아니면 시민 사회에서 종사하든지 우리는 이런 도전을 기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제안이 우리의 책임감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계획에 또한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점철된 강한 대립들은 민족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방향을 지니듯이 마찬가지로 같은 예리하고 확고한 나아갈 방향과 모든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사고와 활동의 범주를 필요로 합니다. (...)

고립되고 분열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형제애와 상호적인 이해심, 일치를 그들 삶의 근본 동기로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에 새겨질 수 있는 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 원대한 이상, 보편적 형제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배경인 도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단체와 제도라는 주체가 있고, 일치는 상이성으로 인해 부유해졌고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젝트, 세상의 일치를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시선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일상의 노력 차원에서 출발해 우리의 민족들, 상호성의 수많은 낯설 씨실을 위한 거대한 정치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모자이크를 다시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라틴 아메리카 도시로 시작해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새로운 참여의 가능성과 새로운 경청에 열려있는 자세는 가장 작은 이들의 회복을 위한 예기치 않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무엇보다 자유 안에서 재산의 나눔을 실천하며 경제 회로와 기관들을 전염시킬 줄 알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 차원으로 도시에서, 바탕에서 시작하며 우리는 오늘 날 강한 불의로 약해진 세계 정치를 혁신시키기 위해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다원주의를 존중하면서도

¹² Dal *Messaggio al Convegno dei sindaci dell'America Latina "Città per l'unità"* - Rosario, 2-3 giugno 2005

공감하는 정치 프로젝트가, 세계화되었지만 수많은 소중한 정체성을 지닌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험, 프로젝트, 유용한 생각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뿌리에 존재하는 토착민의 수천 년의 지혜와 이민자의 기여를 기원하는데, 그들을 환영하는 여러분 사회에 온전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일반 자원과 무엇보다 문화적 자원들, 자연을 존중하는 것과 경제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바램, 여러분 나라의 민주주의적인 비옥한 생명력이 전 인류의 선물이 되기 위해 형제애 안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평화”¹³

인류가 계속해 살아가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생각 옆에 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공존에 필요한 근본적인 생각으로서, 이것이 없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인류 가정의 우선적인 법률로서 평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 형제들 간에 총을 겨누고, 너무나 많은 무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총을, 미사일을, 폭약을 손에 듭니다. 아니면 3 천 년기의 사람들의 양심은 무기는 오로지 방어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결코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해 줍니다. 가능할 때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힘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과 수술용 칼처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청원

무엇보다 종종 무능력함이 된 국제적 청원에 올바른 신용을 다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 전쟁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각 민족의 특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적 권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지구 상 정전 지대에서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하지만 또한 다른 곳에서 발생했으나 너무나 자주 잊혀진 다른 모든 전쟁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채 전 중동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¹³ Da *No alla sconfitta della pace* Editoriale, Città Nuova, 2003, n. 24

기억하는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다음 날 국가 책임자들의 말에서는 보복의 어조가 아니라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전하는 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곧 테러리즘으로 펼쳐진 문제들 만이 아니라 세계적 불의로 야기된 문제들을 직면하기 위해, 고유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용기 있는 자아비평의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논리들, 일률적인 답들, 국제 권위의 타협이나 역할을 옆으로 제쳐두는 일이 우세했습니다.

오늘 날 목적의 일치에로 되돌아가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해결책으로 축소될 수 없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동의 결정 안에서 참된 동등성을 모든 국가에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 하지 않지만, 늘 오로지 모두의 일치를 대표하는 국제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국제 조직 형태가 형성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억하게 됩니다. «폭력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들이 발전하고 이들 사이의 협력이 굳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정의

그 다음으로, 제 생각에는 세계적 정의가 필요한 듯 합니다. 국가 정상들은 예외 없이 그들 모두가 선거 공약에서 따르고자 약속하는 참된 경제적 균형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에서 실천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수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부의 새로운 분배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게 될 것으로,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견딜 수 없는 가난이라는 스캔들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이것들이 없다면 발전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영신적 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아마도 더 심오한 것일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20 억으로, 세상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느님의 놓는 참되고 진정한

혁신을 이루면서, 평화와 마음들과 군대들의 세계적 비무장의 토대인 참된 영신적 삶에 자리를 다시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제가 세상 여러 곳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인들 사이의 대화는 엄청나게 쉬워질 것이고, 2002 년 1 월 아시시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종교를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심지어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에 호소하며 (...)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평화

(...) 항복하지 맙시다! 가장 끔찍한 전쟁들로 인해 종종 예기치 않은 도덕적 도발과 의심할 수 없는 에너지들이 태어났습니다. 때론 거룩한 섭리는 인류에 “다시 숨을 주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한 인간의 자유로 야기된 파괴의 상황을 활용했습니다. 표징들은 많은데, 심각한 국제적 상황으로부터 마침내 부유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 첨단 무기 지니든 그렇지 않든, 종교를 지니든 아니든 함께 “평화를 고안하는” 용기를 지니고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시기를 끝냈습니다. 전쟁은 결코 거룩하지 않으며,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로지 평화만이 거룩한데, 하느님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생명의 날을 맞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시다.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합시다.